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김 현 주** · 이 병 훈***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통해 재생산되도록 만드는 변수들의 영향을 밝히려고 하였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 특히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독립적으로 또는 가족배경을 맥락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중고등학생 총 2771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가족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동시에 존재하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이 거의 없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 아버지의 직업과 자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으나 가족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임을 발견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어려우며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과 함께 결합된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기여함을 발견하였다.

핵심단어: 사회경제적 요인, 학업성취, 사회자본, 문화자본

I. 문제제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에서 재생산되는지의 여부나 재생산 방식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연구의 결과들은 근대

* 이 논문의 일부는 저자들의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하였다(김현주·이병훈, 2005, “부모의 가족배경과 사회문화적 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47-70).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단순히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여부에 가족배경이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차츰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이라는 의미의 학업성취에서는 가족배경의 영향이 여전히 존재함을 발견하고 있다(방하남·김기현, 2002, 2003).

자녀의 사회계층 재생산은 매우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행위자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된다(Lareau and Horvat, 1999; Olneck, 2000).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어서 고정적인 변수들이지만 교육적 맥락에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은 사회재생산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가변적 변수들이다. 최근에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들이 학교의 재생산 경향이나 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Lamont and Lareau, 1988; Teachman, Paasch and Carver, 1997; Lareau and Horvat, 1999; Olneck, 2000; Stanton-Salazar, 2001). 따라서 학업 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에 의한 영향 자체보다 어떤 매개변수를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설명보다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과 결합하여 사회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연계망내의 참여를 통해 발달된 자원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혜택을 위해 이러한 자원을 증가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회자본이다(Bourdieu, 1977a, 1977b, 1986; Portes and Landolt, 1996). 사회자본은 사람들간의 권위, 신뢰와 규범으로 존재한다고 콜먼(Coleman, 1988)은 설명하였다. 골딘과 카츠(Goldin and Katz, 1999)는 중등교육의 발현에 있어서 사회자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논의하였다.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교환될 수 있으며, 사회자본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사회 통제, 가족의 지지와 가족의 연계망에서의 혜택을 열거할 수 있다(Portes, 1998: 9).

문화자본의 개념은 왜 학업성취가 사회계층의 재생산과 관련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집에서 문화적 경험이 학교에서의 자녀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자원이 문화자본으로 전환된다. 특정한 유형의 문화자본은 학교에서 사용되고, 어떤 유형의 자본은 교사에 의해 수용되지만 어떤 유형은 거부되기도 한다는 것이 분석되었다(Lareau, 2000).

계급재생산에 있어 문화자본이 경제자본과 독립적으로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급간 문화적 차별성은 분명히 존재하고(조돈문, 2005), 이러한 문화자본은 경제자본과 연관성이 높으며(조은, 2002), 결혼을 통해 자신의 계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최선헌, 2002)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조은, 2002),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밝혀지고 있다(보울즈·진티스, 1986; 방하남·김기현, 2002; 장미혜, 2002).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인적 자본과 경제적, 물리적, 기술적 자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라노페터(Granovetter, 1985)의 매대성 개념이 사회자본이 어떻게 다른 자본의 형태와 연관되는지 밝혀준다. 사회적 관계와 연계망은 다른 자본들이 전달되고, 축적되고, 소멸되는데 기초가 된다. 문화자본은 사회자본이 투자된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획득된다. 동시에 사회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문화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Portes, 1998). 그러나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배경으로 활용가능한 물질적, 경제적 자원,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이나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회재생산의 과정은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 과정에 개입되는 사회적 행위자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국사회에서는 성별과 교급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이데올로기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인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교육체계의 특성상 진정한 의미의 경쟁에 의한 선별은 대학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의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과 자녀의 심리적 요인들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들 요인의 영향력은 이미 기존연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바 있으며, 이번 연구는 이에 더해 이러한 배경변수들을 맥락으로 하여 가족과 자녀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자본, 문화자본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성별과 교급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¹⁾.

1) 교급이라는 개념은 주로 교육학에서 활용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중등학교·대학의 학교수준(educational level)을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구분을 위해 교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II. 기존연구

1.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기존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정의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학업성취를 다음 교육단계로의 진입이라고 보는 연구와 성적과 같이 상위 위계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 교육 단계별 진학에서 부모의 교육과 직업, 소득이 갖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비교적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더 많이 내리고 있다(방하남·김기현, 2003; 김기현, 2004). 반면에 좋은 성적으로 정의되는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부모의 배경변수의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대학졸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등교육으로의 진입만으로는 상위의 사회계층적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기득권층은 “방어적 교육투자”의 전략(Thurow, 1972)을 택해 위계서열이 높은 고등학교, 대학으로의 진학을 시도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기득권층의 이러한 방어적 교육투자전략을 반영하듯이 교육기회의 양적인 계층화는 감소하고, 질적인 계층화가 구조화되는 경향을 발견하기도 하였다(방하남·김기현, 2003). 방하남·김기현(2002)은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능 서열분포상의 상위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장미혜(2002)도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많으면 자녀들의 수능성적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현주(1999)나 윤경희(2001)는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학업성적은 관련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김현주·이병훈(2006)은 여학생에게서 어머니의 학력과 좋은 성적의 정적 상관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재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원들에 투자된다. 상위 위계의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외와 같은 사교육비의 투자도 부모의 배경변수가 전환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과 소득이 사교육을 매개로 자녀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정영미·김정미, 2002; 김현주·이병훈, 2006). 자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변수가 전환된 형태이다. 또한 문화생활비도 전환된 문화자본으로 볼 수 있다. 장미혜(2002)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취향과 인지적 능력 형태의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

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디마지오(DiMaggio, 1982) 역시 하층이나 중산층의 남자들의 경우 문화자본에 해당하는 경험들이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에 기초하면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계층 재생산을 위해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사회경제적 맥락에서도 더 많은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으로 전환시켜 자본화 하는 것이 자녀의 성공적인 사회재생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외에 동원될 수 있는 경제적 자원과 사회자본 그리고 문화자본의 영향력에 대해서 교급별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고등교육의 진입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감소하고 있지만(장상수, 2004, 2006), 가부장적 전통에 근거한 ‘부의 극대화 가설’에 따른 성별차이의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이미정, 1998). 이번 연구에서는 교급별 차이와 함께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 자체가 학업성취의 성별 차이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같은 맥락 안에서라도 다른 자원과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자녀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부모의 교육적, 문화자본이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어 계급을 재생산한다는 주장은 부르디외의 연구들을 통해서 확산되었다(Bourdieu, 1986, 1990). 부르디외는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전이되는 문화, 교양, 취향의 자산을 문화자본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가 평등지향적이 될수록, 경제적 동기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문화적, 사회자본으로 전환되어 숨어들어가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본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여 부모 세대의 계급을 재생산한다고 본다(이정선, 2001a; 김상준, 2004).

한국에서 학업 성취를 통한 계급재생산의 통로로 문화자본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장미혜, 2002; 조은, 2002; 최선희, 2002) 부모 세대의 문화자본이 자녀 세대의 문화적 취향이라는 자본으로 전수되어 계급 재생산에 기여함을 발견하였다. 부모가 갖고 있는 예술적 취향과 인지적 능력이라는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장미혜, 2002). 질적인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내재화되어 상층 계층적 취향을 형성하고 학업과 직업에서 계층 재생산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전문관리직의 부모세대는 문화자본에

기반하여 자녀의 계급재생산을 하고 있다(조은, 2002). 부모들의 경제적 자본에 근거하여 서양고전음악 전공이라는 자녀의 문화자본으로 전환되고, 이를 통해 부모의 계층적 지위가 문화자본에 근거한 결혼전략을 통해 자녀세대에서 재생산되는 과정을 발견하였다(최재별, 2002).

콜맨(Coleman, 1988: s98)은 사회자본을 구성원들간의 관계구조 속에 존재하며 특정행위를 촉진하는 연결망으로 정의한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기회를 높이기 위해 사회자본을 사용한다. 이러한 사회자본에는 아동의 성장에 유용한 성인, 부모나 다른 부모, 교사를 포함하는 성인과 아동과의 관계, 사회적 연결망, 규범 등을 포함한다. 세대간 밀접성은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사회자본을 강화해 준다(이정선, 2001b). 콜맨은 중퇴율을 기준으로 가족의 사회자본이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Coleman, 1988). 브라츠·퍼트남(Braatz and Putnam, 1996)은 학부모의 사회자본, 즉 학부모의 학교 참여, 가정, 지역사회 참여, 학교 내의 사회자본이 학업성공에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펀스타인버그·휴즈(Furnsteinberg and Hughes, 1995)도 사회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됨을 발견하였다. 가정 내 사회자본, 즉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숙제 돕기, 자녀의 학습활동 함께하기, 자녀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자녀의 고교 졸업율, 대학 재학율과 사회적 지위에 관련됨을 밝혔다.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거나 학습에 우호적인 분위기, 즉 공부방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은 사회자본도 자녀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이정선, 1996).

콜맨(Coleman, 1987)은 부모의 인적,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어렵고, 사회자본을 함께 갖추고 있을 때 자녀의 학업성취가 향상됨을 발견하였다(이정선, 2001b). 티치만 외(Teachman et al., 1997)는 일반적 사회자본과 구체적 사회자본이 자녀의 중퇴율과 관련됨을 발견하였다²⁾. 종교학교에 재학하거나,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자녀가 중퇴율이 낮고, 부모자녀의 유대가 강할수록 자녀의 중퇴율이 낮다. 반면 잦은 전학은 중퇴율을 높인다. 이들은 사회자본이 부모의 인적,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전수하는데 매개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적 자본, 경제자본, 물리적 자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Granovetter, 1985; Bourdieu

2) 일반적 사회자본에는 가족구조, 종교학교 재학여부, 전학 회수 등을 포함하고, 구체적 사회자본에는 부모가 자녀의 친구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 부모와 자녀간 상호작용의 강도, 부모와 학교간 상호작용의 강도 등을 포함한다.

and Coleman, 1991; Portes, 1998). 이번 연구에서는 자녀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변수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와는 별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교급과 성별에 따라 전환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3. 자녀의 학습과 생활태도

학생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적 긴장감으로서 심리적 안녕정도의 대표적인 지표이다(한미현·유안진, 1996). 스트레스는 개인의 적응이나 행동에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임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Gecas, 1971; Harter, 1982). 가정의 불화 등도 아동의 학교태도나 적응,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연주, 1996; 정병태, 1998). 가정폭력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자긍심이 낮고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결과도 있다(서영숙·박옥임, 2002)

자긍심도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김용래, 1987; 이경아·정현희, 1999; 김종한, 2001; 김기에·이소은, 2005).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Campbell, 1990), 적응력이 높고(장희순·이영, 1990), 학교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차유림, 2001). 학업성취와 자아개념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김용래, 1987). 이경아·정현희(1999)는 학업성취에 자아존중감,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스트레스 순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심리적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적응력이 높고, 사회적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학교 적응력이 높게 나타난다(김기에·이소은, 2005). 자아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은 직접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과선택도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와 관련된다(김종한, 2001).

이성교제와 학교부적응 문제에 대한 연구(이춘화·윤옥경, 2003)들은 이성교제가 학업성취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학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자녀의 성별과 교급

성별에 따라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있다(장상수, 2004; 김현주·이병훈, 2006). 장상수(2004)는 지난 수십년동안 학

력성취의 이행단계에서 성별차이는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이행단계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별차이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학력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남학생의 학업성취에 가족의 배경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여학생의 학업성취에는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여부가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김현주·이병훈, 2006).

여성의 학업성취에서 부모의 가족배경 변수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들에게서 남자에게 훗날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고, 아들에게 우선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이미정, 1998). 가부장제에서는 성별에 따라 가족자원을 차등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자원이 한정된 가족에서는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차별적 교육투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성차이에 대한 다른 설명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평등주의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딸에게도 교육투자를 동등하게 하여 성별차이가 적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인적,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투자된다면 부모의 배경변수들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배경변수와 가족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전환된 변수들의 영향을 밝혀 보려고 한다.

가족 배경변수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교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보울즈·진티스 1986; 방하남·김기현, 2003; 김기현, 2004). 부모의 배경변수들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회화과정에 내재되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보울즈·진티스 1986)가 있는 반면 학력 단계별로 계층간 불평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방하남·김기현, 2003)나, 특정 영역에서 부모의 자원들이 자녀의 학업성취 단계에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기현, 2004)는 연구들이 있다. 또한 교육단계별 이행에 있어서는 가족배경의 영향, 즉 계층화의 효과는 감소하지만, 진학경로에 있어서는 계층화가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다(방하남·김기현, 2003).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은 교육단계별 진학에서 영향이 감소하나 경제적 자본의 영향력은 교육단계의 상위단계로 가더라도 영향이 감소하지 않는다(김기현, 2004)는 발견도 있다. 현재 한국의 교육상황을 보면 초·중등학교 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 단계의 경쟁은 대학진학을 위한 고등학교에서의 경쟁에 대한 예비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상위위계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고등학교 차원의 경쟁과 초·중등학교 차원의 경쟁은 일정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만큼, 고등학생의 부모와 중학생의 부모 사이에는 상이한 교육전략

이 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연구의 결과들에 기초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배경변수와 가족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상이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또한 부모의 배경변수들의 여러 영역들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중고생 6,000명(중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각 2,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교육경험과 진학·진로·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교육 및 고용실태를 2004년부터 10년 이상 추적 조사를 계획하였다. 이 조사사업에 의해 수집된 1차 패널데이터(KEEP)를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하고, 2단계에는 지역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3년 교육통계 조사에 기초하여 1295개 학교를 표본틀로 구성하였다. 학교를 추출하는 1차 단계에서는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층화하고, 지역별로 층화된 학교들을 전국 학생수 대비 해당지역 학생수 비율을 사용해 추출할 학교수를 결정하였다³⁾. 선정된 학교에서 4개 학급을 선정하였으며 각 학급에서는 계통추출법에 의해 각 5명의 학생을 추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1차 패널데이터에서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새로이 구성하였다. 이들의 가구정보와 담임의 학생에 대한 정보도 같이 사용하였다. 1차 한국교육고용패널 중학교 학생자료 사례 2,000개와 일반계 고등학생자료 사례 2,000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모의 속성변인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한부모 또는 비부모 동거 학생을 제외하고 분석대상 변인의 결측치를 제외한 결과 총 2,771개(중학생 1,517개, 고등학생 1,254개; 남학생 1,430개, 여학생 1,341개)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⁴⁾.

3)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른 방식으로 추출되었다.

4) 직업능력개발원 패널자료에는 동거부모에 대해서만 부모의 학력과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만 자료를 구성하였다. 부모의 속성변수들을 제외하고 부모의 동거여부만 분석하였을 때, 한부모 동거와 부모 동거, 비부모 동거와 부모 동거를 가변수로 처리하여

<표 1> 분석대상자의 인적 속성별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교급	중학생	1,517	(54.7)
	고등학생	1,254	(45.3)
성별	남학생	1,430	(51.6)
	여학생	1,341	(48.4)
학교성적	상위 20%	606	(21.9)
	중상위 20%	599	(21.6)
	중간 20%	639	(23.1)
	중하위 20%	498	(18.0)
	하위 20%	429	(15.5)
합계		2,771	(100.0)

분석대상 사례의 속성별 분포는 <표 1>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분석대상으로는 중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조금 더 많다. 성적 분포에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으나 중하위와 하위 층위에 조금 적게 분포되었다.

2. 변수의 측정

학생의 개인적 속성과 태도에 관한 변수들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 학생에게 전환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선정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학력과 부의 직업범주,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측정하였다. 학력은 교육년수로 측정되었다. 취업은 어머니의 경우, 취업과 미취업으로 나누었으며, 미취업을 기준변수로 삼았다. 아버지의 경우에 취업을 직업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고위관리직, 전문직, 사무/서비스/판매직, 생산직/노무직/농어업, 미취업/무직으로 분류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생산직을 기준 범주로 설정하였다(<표 2> 참조).

부모의 경제적 자원으로 가구의 월 소득과 자산을 측정하였다. 소득은 지난 1년간 가구 월 소득을 자연대수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자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총액을 자연대수를 취해 사용하였다. 자녀에게 전환된 부모의 경제적 자원으로는 사교육비와 자녀의 방 유무, 즉 자녀들에게 주어진 독립된 방의 존재

비교하였을 때, 전체학생집단에서는 한부모 동거만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학생 집단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한부모와 동거하거나, 비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보다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부모와의 동거형태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2> 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 (n=2,771)

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비고
개인 변수			
성별(더미)	0.52	0.500	여자=0, 남자=1,
교급(더미)	0.45	0.498	중학생=0, 고등학생=1
이성교제(더미)	0.13	0.333	이성친구 없음=0, 있음=1
학생의 심리적 변수			
가정생활 만족도	3.40	0.804	5점 척도
학교생활 만족도	3.80	0.868	5점 척도
자긍심(요인점수)	-0.00	0.996	학생 자긍심 6개 문항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			
부의 학력년수	12.77	2.840	부친 교육년수
부의 직업범주 더미			기준범주: 생산직
고위관리직	0.09	0.291	
전문직	0.19	0.392	
사무/서비스/판매직	0.26	0.437	
노무직/농어업	0.12	0.321	
미취업/무직	0.05	0.216	
모의 취업여부(더미)	0.61	0.488	미취업=0, 취업=1
가구 월소득(로그)	5.65	0.626	지난 1년간 가구월소득 자연대수
가구 자산(로그)	9.45	1.116	부동산/금융자산 총액 자연대수
학생의 경제적 자원			
사교육비(로그)	10.74	4.314	지난 학기 월 사교육비 자연대수
학생 공부방(더미)	0.82	0.387	공부방 없음=0, 있음=1
학생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문화생활비(로그)	8.68	4.938	지난 1년간 문화생활비 자연대수
가족과의 대화시간	2.63	0.970	대화시간의 5점 척도
가족의 관심정도(요인점수)	0.94	0.958	관련 6개 문항 요인점수
가족과 문화활동(요인점수)	0.61	1.011	관련 2개 문항 요인점수
교사 자원(누적점수)	2.67	1.299	관련 4개 문항 누적합계점수
친구 자원(요인점수)	0.01	1.005	관련 7개 문항 요인점수
종속 변수			
성적 석차	47.07	27.468	전교 성적 석차비율(%)*

주: * 석차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학업성적을 의미한다.

여부를 측정하였다. 사교육에 드는 비용은 지난 학기 월 사교육비를 자연대수를 취해 사용하였다.

학생인 자녀에게 전환되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측정하였다. 사용된 변수에는 문화생활비, 가족과의 대화시간, 가족의 자녀에 대한 관심정도, 가족과의 문화활동, 교사자원, 친구자원이 있다.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문화자본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스타일이나 매너와 같은 것, 문학이나 음악과 같은

형태와 학문적 자격증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형태가 가장 재관적이며 학업성취도와 독립적으로 측정가능한 것이므로 문화생활비의 정도와 가족과의 문화활동을 문화자본의 지표로 선정하였다. 문화생활비는 지난 1년간 지출한 문화생활비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문화활동에는 문화활동과 관련된 항목 즉 영화나 연극, 뮤지컬 관람과 박물관이나 미술관, 음악회 감상을 얼마나 자주 가족과 학생이 함께 하였는지 측정하였다. 두 항목으로 구성된 문화활동 척도의 신뢰도는 0.6926이었다. 두 문항을 요인분석한 후 각 문항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합산한 요인점수를 사용하였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연계망내의 관계로 특징 지워지는데 강도(약함과 강함)와 관계의 방향(수직이나 수평적 관계)의 두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Granovetter, 1973, 1982, 1985; Porges, 1998). 사회자본의 성격을 갖는 가족과의 밀접성을 측정하기 위해 학생의 가족과의 대화정도, 자녀에 대한 가족 관심을 포함시켰다. 사회적 연계망으로서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측정할 항목을 포함시켰다.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정도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에서부터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생에 대한 가족의 관심도는 6개 영역에 대해 측정되었다. 6개 영역은 '학업 및 성적에 관한 사항', '친구에 관한 사항', '친한 친구의 부모에 관한 사항',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생활 습관에 관한 사항', '현재의 개인적 고민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전혀 모른다'에서부터 '매우 잘 알고 있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6개 항목의 신뢰도 검사 결과 신뢰도 계수는 0.7370이었다. 문화활동과 같은 방법으로 요인점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학교 선생님과과의 관계에 관한 항목들은 4개의 항목으로서 해당하는 항목이 많으면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4개의 항목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에 '예'로 응답한 항목수를 누적 합산해 사용하였다. 신뢰도계수는 0.6637이었다.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7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7개의 항목은 '공부를 잘한다', '춤, 노래, 운동, 유머 등 재주가 있다', '리더십이 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 '친구관계가 좋다', '학교생활에 성실하다'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가 응답 범주이다. 7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후 요인점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요인점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7개 문항의 신뢰도는 0.6815이었다.

학생 자신과 관련된 변수들로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자긍심과 이

성교제 여부를 사용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성교제는 이성친구가 없는 것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정생활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는 단일문항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 5점 척도이다. 자긍심은 6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6개 문항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다’,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이다. 6개 문항의 요인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뢰도 수준은 계수 0.7585로 높았다.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의 지표로 사용가능한 변수에는 담임교사가 평가한 학생의 성적석차퍼센트와 학업수준의 5분위 평가가 있다. 5분위 평가보다는 성적 석차퍼센트가 보다 더 객관적이므로 성적 석차퍼센트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본적인 통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⁵⁾.

독립변수들을 5개의 군으로 나누어 모형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독립변수들간에 상호관련성이 존재하지만 독립변수들간의 상호연관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다만 다중공선성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⁶⁾.

IV. 분석결과

1.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표 3>).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인이며, 자산 총액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은 중학생과 남학생 집단에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직업군을 생산직과 비교하였을 때, 전문직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고위관리직은 중학생집단과 여학

5)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교급과 성별에 따라 t-검증을 통해 평균비교를 시행하였다. 성별차이보다 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이 조금 더 많으나(학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부의 직업변부, 소득, 문화생활비, 교사자원, 친구자원), 이런 성별과 교급별 차이를 보는 연구의 모형으로는 모든 변수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6)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VIF계수가 2를 넘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육정도만 모형에 포함시키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제외하였다.

<표 3>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독립모형 (1)

	전체학생 (n=2771)	교급		성별	
		중학생 (n=1517)	고등학생 (n=1254)	남학생 (n=1430)	여학생 (n=1341)
성별	0.067***	0.087***	0.034	—	—
교급	0.013	—	—	-0.024	0.027
이성친구 유무	0.108***	0.133***	0.086***	0.085***	0.137***
F타	14,826***	18,741***	5,355***	5,516***	13,308***
Adj. R ²	0.016	0.024	0.008	0.008	0.020
학교생활 만족도	-0.065***	-0.055**	-0.072**	-0.067**	-0.068**
가정생활 만족도	-0.105***	-0.099***	-0.111***	-0.118***	-0.093***
학생 자긍심 (요인점수)	-0.100***	-0.121***	-0.076***	-0.119***	-0.088**
F타	34,610***	20,727***	14,240***	22,478***	14,217***
Adj. R ²	0.036	0.039	0.033	0.045	0.031
부진학력	-0.110***	-0.130***	-0.082**	-0.156***	-0.058*
부직업-고위관리직	-0.018	-0.065**	0.040	0.043	-0.083***
부직업-전문직	-0.084***	-0.101***	-0.066*	-0.078**	-0.088**
부직업-사무/서비스/판매직	-0.056**	-0.061**	-0.050	-0.044	-0.068**
부직업-노무/농어업	-0.045**	-0.037	-0.058*	-0.041	-0.043
부직업-미취업/무직	0.002	0.014	-0.010	-0.003	0.003
모 취업	0.029	0.051**	0.006	0.057**	-0.005
가구 소득(log)	0.012	-0.028	0.001	-0.063*	0.031
자산 총액(log)	-0.104***	-0.111***	-0.089***	-0.099***	-0.105***
F타	16,713***	15,281***	4,244***	14,594***	5,322***
Adj. R ²	0.052	0.084	0.030	0.085	0.035

주: * p<0.10, ** p<0.05, *** p<0.01

생 집단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만으로 학업성취도를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집단은 중학생 집단(8.4%)과 남학생 집단(8.5%)이다.

2.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전환되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leman, 1987, 1988; Furnsteinberg and Hughes, 1995; Braatz and Putnam, 1996; Teachman et al., 1997; 장미혜, 2002; 조은, 2002; 최선텔, 2002). 자녀의 경제적 자원인 사교육비의 투자가 많고 독립된 자녀 방이 있는 경우에 학업성취도는 높았다(<표 4> 참조). 자녀에게로 전환된 사회자본과 문화

<표 4>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독립모형 (2)

	전체학생 (n=2771)	교 급		성 별	
		중학생 (n=1517)	고등학생 (n=1254)	남학생 (n=1430)	여학생 (n=1341)
사교육비(log)	-0.098***	-0.139***	-0.057**	-0.109***	-0.085***
자녀방 유무	-0.083***	-0.095***	-0.059**	-0.107***	-0.076***
F비	26.368***	25.956***	4.482**	19.227***	9.897***
Adj. R ²	0.019	0.033	0.007	0.025	0.015
문화생활비(log)	-0.075***	-0.103***	-0.048	-0.100***	-0.053*
자녀와의 대화	0.000	-0.022	0.028	0.002	0.006
자녀에 대한 가족의 관심	-0.146***	-0.163***	-0.124***	-0.158***	-0.124***
가족과 문화활동 (요인점수)	-0.040**	-0.074***	0.010	-0.023	-0.056*
교사자원	-0.057***	-0.045*	-0.074**	-0.087***	-0.026
친구자원 (요인점수)	-0.065***	-0.083***	-0.041	-0.055**	-0.077***
F비	28.407***	22.935***	6.669***	16.860***	9.753***
Adj. R ²	0.054	0.084	0.031	0.066	0.042

주: * p<0.10, ** p<0.05, *** p<0.01

자본 중에서 자녀와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교급과 성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가장 설명력이 높은 집단은 중학생 집단(8.4%)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남학생집단(6.6%)이었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가족과의 문화활동이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으나, 여학생들은 가족과의 문화활동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남학생에게는 교사와의 좋은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는 자녀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자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전환된 자원들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5>는 이러한 배경변수와 자녀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녀에게로 전환된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되거나 소멸되었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의 사회자본 중 하나인 자녀에 대한 가족의 관심은 여전히 학업성취에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문화생활비의 영향력은 소멸되었으며, 사교육비 투자효과나 자녀 방의 존재효과는 약화되었다(<표 5>). 가족과의 문화활동의 효과도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에 약화된 형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문화자본이 독립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자녀의 학

<표 5>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최종모형

	전체 학생 (n=2771)	교 급		성 별	
		중학생 (n=1517)	고등학생 (n=1254)	남학생 (n=1430)	여학생 (n=1341)
성별	0.067***	0.095***	0.038	—	—
교급	0.013	—	—	-0.019	0.042
이성친구 유무	0.108***	0.132***	0.084***	0.092***	0.127***
학교생활 만족도	-0.058***	-0.056***	-0.065**	-0.070**	-0.055*
가정생활 만족도	-0.059***	-0.039	-0.085***	-0.078***	-0.042
학생 자긍심 (요인점수)	-0.057***	-0.071***	-0.040	-0.057**	-0.052*
부친학력	-0.082***	-0.089***	-0.065*	-0.139***	-0.011
부직업-고위관리직	-0.014	-0.046*	0.030	0.046	-0.079**
부직업-전문직	-0.069***	-0.075**	-0.063*	-0.061*	-0.072**
부직업-사무/서비스/판매직	-0.050**	-0.039	-0.057	-0.037	-0.068**
부직업-노무/농어업	-0.050**	-0.043	-0.060*	-0.045	-0.047
부직업-미취업/무직	-0.006	-0.008	-0.020	-0.011	-0.003
모 취업	0.018	0.035	0.000	-0.044*	-0.014
가구 소득(log)	0.013	-0.007	0.029	-0.027	0.049
자산 총액(log)	-0.063***	-0.068**	-0.052	-0.060*	-0.059*
사고속비(log)	-0.027	-0.060**	-0.007	-0.026	-0.032
자녀방 유무	-0.043**	-0.022	-0.044	-0.039	-0.042
문화생활비(log)	-0.028	-0.037	-0.019	-0.026	-0.030
자녀와의 대화	0.012	-0.002	0.029	0.008	0.016
자녀에 대한 가족관심 (요인점수)	-0.108***	-0.118***	-0.095***	-0.117***	-0.099***
가족과 문화활동 (요인점수)	0.018	-0.002	0.050*	0.034	-0.008
교사지원	-0.034*	-0.023	-0.056*	-0.055**	-0.011
친구지원 (요인점수)	-0.026	-0.050*	0.003	-0.007	-0.045
F값	14.242***	12.469***	4.529***	10.369***	5.728***
Adj. R ²	0.107	0.155	0.075	0.140	0.087

주: * p<0.10, ** p<0.05, *** p<0.01

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학습시간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고등학교 시점에서의 문화활동에의 참여는 이론적 배경이나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보여주었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이 존재하였다(<표 5>).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의 경우에는 소멸되었지만 나머지 집단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었다. 전문적이 갖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여전히 동일하였다. 자산총액이 갖는 효과는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소멸되었으나 나머지 집단에서는 약화되었지만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⁷⁾.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지속적인 영향력이 건재함은 자녀를 단위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이나 문화활동의 기회확대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교급별로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이 중요하며,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사회자본인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통계변인으로 활용되었던 이성교제(부적)와 학생들의 만족도(정적)와 자긍심(정적)은 대체로 예상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학업성취도에 매우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표 5>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학생변인들이 분석모형에 포함되었을 경우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효과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변인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중학생과 남학생에게 보다 적합한 모형이다.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커서 15.5% 정도이다. 중학생집단에게는 유의미하지만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들은 성별, 자긍심, 자산의 총액, 사교육비, 친구자원 변수이다. 반면에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수이지만 중학생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들은 가정생활만족도, 아버지의 직업이 노부직이나 농어업인 경우, 학생의 문화활동 정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이다.

교급별로 유의미도가 달라지는 변수들을 종합하면 학력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의 계층재생산의 효과는 감소하고 교사와의 관계를 통한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단계가 진행될수록 가족배경 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방하남·김기현, 2003; 김기현, 2004). 학생 개인과 관련된 변수로 자긍심의 영향이 교급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진다는 기존연구결과(김용래, 1987)와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모형이 설명력이 높다(여학생 8.7%, 남학생 14.0%).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사회자본이나 어머니의 취업, 아버지의 학력에 의해 영

7) 기존 연구의 '부의 극대화기설'과 달리, 학업성취에 대한 자산규모의 효과가 성별차이를 별로 보이지 않은 배경에는 과거의 다자녀 가구에서 한 자녀 또는 두 자녀의 가구로 재편됨에 따라 학업지원에 있어 가구의 경제적 자원을 아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양성평등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케 된다.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의 경우 가정생활만족도의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가족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에게는 계층재생산 가설이 대체로 적합하지만, 고위관리직인 아버지의 직업의 영향은 사회계층재생산 가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은(2002)이 발견한 것처럼 부모의 계층이 자녀세대에서 재생산되도록 하는 기제가 계층과 직업군에 따라 다르다면 인적자원에 기초하여 계층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전문직 아버지를 둔 남학생은 자신의 인적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학업성취를 지향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여학생은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취업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버지의 직업군이 생산직 이상의 위계에 해당하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사회재생산 가설이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은 적지만 여전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딸의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V. 결론

이번 연구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변수와 가족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변수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전환된 가족배경변수들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성별과 교급별로 다르다는 것도 밝혀 주고 있다. 교육단계가 진행될수록 가족재생산의 효과는 감소하고 교사자원과 같이 보다 자녀의 개인차원의 변수들의 영향력이 증대된다. 또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부모의 다양한 자본에 의한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전의 연구(장상수, 2004)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학력성취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더 증가하였다는 발견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가족배경의 요인들이 학력성취와 이번 연구에서처럼 좋은 성적으로 정의되는 학업성취도에 작용하는 방식이 다른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김현주·이병훈(2006)의 연구에서 발견한 것처럼 자녀의 성별에 따라 가족의 배경변수가 계층재생산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의 사회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역할 모델에 기초한 학습동기화를 포함한 연구모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자녀에게 전환된 형태의 경제적 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을 각각 독립적으로 투입했을 경우와 모든 변수들이 동

시에 분석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녀에게로 전환된 경제적 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독립적으로 분석되었을 때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함께 분석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계층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재생산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구의 결과는 방과후 아카데미나 방과 후 학교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반복적인 사회재생산을 약화시키도록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현재 한국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함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제공되어야 효과가 있으며, 특히 ‘자녀에 대한 가족의 관심’이라는 사회자본을 조건으로 인적, 경제적 자원 그리고 문화자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파악된다. 이는 부모의 인적,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사회자본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자녀의 학업성취가 향상된다는 콜만의(Coleman, 1987) 발견과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가족관심이 중요한 사회자본이 됨을 시사한다.

자녀의 경제적 자원으로서 사교육비의 투자와 자녀의 독립된 방의 존재가 독립적으로 분석되었을 때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변수와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는 중학생 집단에서만 사교육비 투자가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송수호, 1994; 강수홍, 2001; 이정환, 2002; 김현주·이병훈, 2006)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사교육비의 투자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이라는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사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박현주, 1998; 정영애·김정미, 2002), 사교육비 투자만으로 독립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이 효과를 배태할 수 있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의 한계로는 분석모형에서 엄격한 의미의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문화자본의 고급취향과 같은 속성을 측정할 지표가 없어서 문화생활비와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지표로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자본은 부루디외, 콜맨, 퍼트남 등의 정의에 기초하여 보통 규범이나 신뢰, 연계망 등으로 조작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찾을 수 없어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를 지표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는 부모의 사회연계망과 연결된 형태의 사회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자본에 부모

의 사회자본이 백락으로 형성되어 통합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탐구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아울러, 학업성취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자긍심 그리고 가족의 관심도 등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 변인들과 학업성취도와의 쌍방향적인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선형분석(OLS)으로는 학업성취와 학생의 심리적 태도 그리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원적이며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이 한계로 인정되며, 이후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변인들간의 인과경로를 엄밀하게 논구하는 분석작업이 추후과제로 제기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수홍 (2001) “학원수강 효과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에·이소은 (2005) “장애부모 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부모 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35-46.
- 김기현 (2004) “가족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8(5): 109-142.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 김연주 (1996) “가정환경, 학교적응,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고려대 석사논문.
- 김용래 (1987)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김종한 (2001)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회귀 분석” 《교육학연구》 39(4): 349-366.
- 김현주·이병훈 (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 성차이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6(봄): 138-161.
- 박현주 (1998)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하남·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_____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

- 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보울즈·진티스(S. Bowles. and H. Gintis) (1986) 이규환 (역) **《자본주의와 학교교육》** 사계절.
- 서영숙·박옥임 (2002)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7(2): 51-73.
- 송수호 (1994)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경희 (2001) “학업성취결정모형의 종단적 분석” **《교육이론과 실천》** 11(1): 137-162.
- 이경아·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213-226.
- 이미정 (1998) “가족 내에서의 성차별적 교육투자” **《한국사회학》** 32(봄): 63-97.
- 이정선 (1996) “학업성취의 사회화: 재미 한인 고등학생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비교교육연구》** 6(1): 269-300.
- _____ (2001a) “콜맨(Coleman)과 브뤼피(Bourdieu)의 사회자본론의 비교와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초등교육연구》** 16(1): 91-112.
- _____ (2001b)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관계: 콜맨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4(2): 147-181.
- 이정환 (2002)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36(6): 195-213.
- 이춘화·윤옥경(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현주 (1999) “여중생의 진로태도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모녀의 심리·배경요인과 관계요인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7(3): 279-321.
- 장미혜 (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장상수 (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8(1): 51-75.
- _____ (2006)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기회: 누가 왜 딸을 대학에 보냈는가?” **《한국사회학》** 40(1): 127-156.
- 장희순·이영 (1990) “시설아동의 학문적 자아개념과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1(1): 100-114.

- 정병태 (1998) “가정불안과 학교태도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애·김정미 (200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9: 113-136.
- 조돈문 (2005) “한국사회의 계급과 문화: 문화자본론 가설들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2): 1-33.
- 조은 (2002) “문화자본과 계급 재생산: 계급별 일상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홍선민 (편) 《문화와 계급: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동문선, 49-86.
- 차유립 (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셋별 (2002) “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고전문학전공여성 사례” **《한국사회학》** 36(1): 113-144.
- 한미현·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Braatz, J. and R. D. Putnam (1996) *Families, Communities, and Education in America: Exploring the Evidence* ED 412637.
- Bourdieu, P. (1977a)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487-511 edited by J. Karabel and A. H. Halsey,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이정선 (1977b)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translated by R. Nic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The Forms of Capital” edited by J. G. Richards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_____ (1990)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London: Sage.
- Bourdieu, P. and J. S. Coleman (1991) *Theory of Changing Society* Boulder, CO: Westview.
- Campbell, S. B. (1990) “Self-esteem and the Clarity of the Self 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leman, J. S. (1987) “The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ocial Structure” edited by M. T. Hallinan, *The Social Organization of Schools: New Conceptualizations of the Learning Process* Plenum Press.

- _____ (1988) "Social Capital in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 S95-S112.
- DiMag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f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Spring): 189-201.
- Fursteinberg, Jr., F. F. and M. E. Hughes (1995)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45-92.
- Gecas, V. (1971) "Parental Behavior and Dimensions of Adolescent Self-Evaluation" *Sociometry* 34: 466-482.
- Goldin, C and L. F. Katz. (1999)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The Rise of Secondary Schooling in America, 1910-1940"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4(4): 683-723.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_____ (1982)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105-130 edited by P. V. Marsden and N. Lin,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 _____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Lamont, M. and A. Lareau (1988) "Cultural Capital: Allusions, Gaps, and Glissandos in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s" *Sociological Theory* 6: 153-168.
- Lareau, A. (2000) *Home Advantage: Social Class and Parental Intervention in Elementary Education* (2nd ed.),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Lareau, A. and E. M. Horvat (1999) "Moments of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Race, Class, and Cultural Capital in Family-School Relationships" *Social Education* 72: 37-53.
- Olneck, M. (2000) "Can Multicultural Education Change What Counts as Cultural Capita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7(2): 317-348.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1-24.

- Portes, A. and P. Landolt. (1996) "The Downside of Social Capital" *American Prospect* 26: 18-22.
- Stanton-Salazar, R. D. (2001) *Manufacturing Hope and Despair: The School and Kin Support Networks of U.S.-Mexican Youth*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Teachman, J. D., K. K. Paasch and K. K. Carver (1997) "Social Capital and the Generation of Human Capital" *Social Forces* 75(4): 1343-1359.
- Thurow, L. (1972) "Educ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The Public Interest* 28: 66-81.